

2024년 기후클럽 논의와 시사점

기후변화정책연구실 윤범석 부연구위원(bsyoon@keei.re.kr)

- ▶ 기후클럽 회원국들은 이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탈탄소화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점과 2030년까지의 기간이 1.5°C 목표 및 산업 탈탄소화 달성을 위한 투자 방향 결정에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면서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협력 강화 등의 주요 결과물을 담은 COP29 성명서를 발표함.
- ▶ 회원국들은 산업 탈탄소화 접근법의 다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예: 탄소누출, 기술적 파급 효과)에 관한 전략적 대화를 이어 나가는 한편, IEA가 제안한 근-제로(near-zero) 및 저-배출(low-emission) 철강 및 시멘트 제품 정의에 대한 원칙을 지지함.
- ▶ 또한, COP29부터 본격 운영될 글로벌 매치-메이킹 플랫폼을 통해 신시장 및 개도국의 지원 요청을 국제 기술 및 금융 자원과 연계하여, 큰 영향력을 가지는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도록 재원 공여자, 금융 제공자, 투자자 네트워크와 협력할 계획임.
- ▶ 한편 COP29 기간 중 독일, 영국, 캐나다, 기후투자기금은 산업 탈탄소화 국제적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COP29 글로벌 공약(독일 및 영국 정부는 4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공약)을 통해 신시장 및 개도국에 대한 국제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발표함.
- ▶ 기후클럽에서는 산업 탈탄소화와 관련하여 근-제로 및 저-배출 제품에 대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 무역, 기술 및 금융 등에 관한 협력 규범을 심화하여 논의하고 있는바, 시장 진출 및 국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관련 논의를 주목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음.

1. 배경

■ 기후클럽 개요

-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및 산업부문 탈탄소화 등을 목표로 2023년 12월 COP28 계기로 출범한 다자협의체로, 4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 처음에는 G7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상되었으나, 협력의 개방적, 포용적, 협력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G20 국가들과 개도국들도 함께 참여 중임.
 - 202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일, 스위스,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 43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기후클럽은 산업 탈탄소화와 관련하여 기존 이니셔티브 활용, 중복 작업 회피 등 협력 작업에 있어 효율을 기하고 국제적으로 진행된 작업과의 조정 및 조율이 강조됨.

“파리협정 효과적 이행 및 산업 탈탄소화 등을 목표로 2024년 11월 현재 43개국이 참여”

■ 2024년 작업 및 성과

- 2024년에는 1) 의욕적이고 투명한 기후 완화 정책의 진전(필러 1), 2) 산업 전환(필러 2), 3)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필러 3) 등 3개 필러에 대해 전략적 의견교환 및 기술 워크숍 등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됨.

〈 기후클럽 2024년 작업 프로그램 〉

구성	모듈1	모듈2	모듈3
(필라1) 의욕적이고 투명한 기후 변화 완화 정책 진전	배출집약도 산정 시 직면 과제 극복	완화 정책 파급 효과의 원인과 관련성에 대한 전략적 대화	기후클럽의 목표와 결과물에 대한 이행현황 추적
(필라2) 산업 전환	비교가능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에 관한 국제적 공통 이해 구축	산업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근-제로(near zero) 배출 ¹ 제품 시장 촉진	산업 전환 정책 수단 및 대상 지원 정책 구성
(필라3) 국제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산업 탈탄소화 공적 재원 및 기술보조 프로그램 관련 작업·이니셔티브 매핑	민간 자본 확보 측면, 성공적 재원 수단 및 가능 조건에 대한 이해도 향상	산업 탈탄소 프로젝트 중심의 매치-메이킹 플랫폼 개발

주1 :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상태를 의미하며, 배출량을 완전히 제거 및 흡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문에서 순-배출 제로 목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자료 : 기후클럽 2024 작업 프로그램(OECD, 2023)

-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되어 왔음.

- 2024년 주요 성과물로 기후클럽 회원국 성명서(COP29), 산업 탈탄소화 국제적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COP29 글로벌 서약, 완화 정책 파급 효과(Spillover)의 원인 및 중요성에 대한 전략적 대화 요약 보고서 등이 있음.

“COP29 성명서를 통해 의욕적이고 투명한 기후 완화 정책, 산업 전환, 국제협력 강화 등 3개 필러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물 발표”

2. COP29 기후클럽 회원국 성명서¹⁾ 주요 내용

▣ 성명서 구조: 총 27개 문단으로 구성

- 문단 1-7은 COP29 성명서 발표의 배경 및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산업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클럽의 역할을 언급함.
- 문단 8-26은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 1) 의욕적이고 투명한 기후 완화 정책의 진전(필러 1, 문단 8-11), 2) 산업 전환(필러 2, 문단 12-21), 3) 국제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필러 3, 문단 22-26) 부문의 결과물을 다루고 있음.
- 마지막 27문단은 향후 계획을 정리함.

▣ 문단 1-7 주요 내용

- 산업 탈탄소화의 중요성
 - 산업부문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1.5°C 경로에 부합하는 글로벌 전환, 2050년 기후 중립 달성, 녹색 성장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1) Climate Club Members Statement Delivered on 12 November 2024 in the context of the high-level Climate Club event at COP29(2024.11.12)

- 또한, 산업부문은 경제 성장에 있어 무-배출 기술, 인프라 및 제품 생산에 필요한 1차 및 가공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시장은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어 의욕적인 국내 감축 노력에 도전이 될 수 있음.
- 산업 탈탄소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다양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할 것임.

○ 기후클럽의 역할

- 회원국들은 산업 탈탄소화, 순환성 강화, 녹색 성장을 통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 지원 및 효과적인 기후 행동 가속화를 위해 협력적인 접근법을 지지함.
-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해 행동적이고, 이행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2030년까지의 기간은 1.5°C 목표 및 산업 탈탄소화 달성을 위한 투자 방향 결정에 중요한 시기임.
- 기후클럽은 그동안, OECD IFCMA²⁾, IDDA³⁾, Breakthrough Agenda, IEA 등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와 협력하면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 오고 있음.
- 기후클럽 글로벌 매치-메이킹 플랫폼(GMP)⁴⁾은 산업 탈탄소화를 2035년 신규 NDC에 포함하려는 국가들의 기술지원 요청사항을 여타 플랫폼 및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필러 1 관련 주요 내용(문단 8-11)

○ 접근법의 다양성 및 파급 효과

- 산업 탈탄소화 접근법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고려하여 국제 기후 정책 체제의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탄소누출, 경제적 파급 효과, 기술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성

- 탄소누출은 국내 기후 정책의 도입 및 강화로 인하여 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글로벌 감축 노력의 전반적인 효과, 기후 의욕, 투자의 실행 가능성, 비즈니스 신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시에, 탄소누출을 완화하려는 노력이나 관련된 조치들은 무역 및 생산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국가들에 서로 다른 도전을 초래할 수 있음.

○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기후클럽의 역할

- 국제협력은 기후변화 완화 조치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줄이며, 관련 조치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2) OECD 포괄적 탄소감축포럼(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3)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ndustrial Deep Decarbonization Initiative)

4) Global Matchmaking Platform

- 기후클럽은 탄소누출 등 파급 효과에 관한 전략적 대화를 지속하면서, 녹색 산업 개발, 시장 파편화 위험, 감축이 어려운 부문(철강, 시멘트 등)에서의 넷-제로 전환에 부합하지 않은 신규 설비 확장 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예정임.

▣ 필러 2 관련 주요 내용(문단 12-21)

○ 근-제로(near-zero) 배출 제품 관련 배경 및 필요성

- 근-제로 배출 제품은 산업 탈탄소화를 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증 및 비용 절감을 통해 2030년 이후 관련 기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리드 마켓 확대와 국가별 노력의 조정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 근-제로 철강-시멘트 정의(definition)와 상호운용 가능한 배출 집약도 측정 시스템은 산업 탈탄소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 내 투명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양한 정책 메커니즘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정의 설정의 원칙(principles)

- 회원국들은 IEA가 제안한 근-제로(near-zero emission) 및 저-배출(low emission) 철강 및 시멘트 정의에 대한 원칙을 지지함.
- 근-제로 배출 정의는 의욕적이고, 안정적이며, 기술 중립적이고, 글로벌 일관성을 가지며, 물리적이고, 투명하며, 접근가능⁵⁾해야 함.

“IEA가 제안한 근-제로(near-zero) 배출 및 저-배출 정의 설정을 위한 원칙을 지지”

〈 근-제로(near-zero) 배출 정의 원칙 〉

근-제로 배출 정의 원칙	내용
의욕성	IEA 시나리오 분석과 일치하고 넷-제로 에너지시스템 종점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함
안정성	시장에 분명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기술 중립성	배출량 기준치는 특정한 생산 경로를 암시하지 않고, 특정 전략을 배제하지도 않아야 하며, 최종적인 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어야 함
글로벌 일관성	배출량 기준치는 생산지 및 소비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한 소통과 일관된 신호를 제공해야 함
물리성	크레딧 상쇄 등을 포함하지 않고 물리적 관점에서 근-제로 배출 수준을 달성하도록 도입되어야 함
투명성	포함된 배출량 경계 및 사용된 회계 방식은 호환성을 위해 분명해야 함
접근성	정책 결정자 및 민간 부문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함

자료 : IEA(2024). Definitions for near-zero and low-emissions steel and cement, and underlying emissions measurement methodologies: Summary of emerging understandings

5) ambitious, stable, technology neutral, globally consistent, physical, transparent, and accessible

- 저-배출 정의는 의욕 수준의 명확성, 점진적 개선 필요성, 기술 중립성, 지역 상황을 고려한 글로벌 일관성, 분명한 이력 관리 체계(chain of custody), 투명성, 그리고 접근 가능성⁶⁾ 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

〈 저-배출(low-emissions) 정의 원칙 〉

저-배출 정의 원칙	내용
의욕성 수준의 명확성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의욕적이어야 하며, 목표로 하는 의욕 수준을 분명히 전달해야 함
점진적 개선 필요성	각국 상황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점차 의욕 수준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함
기술 중립성	특정 생산 경로를 암시하거나 특정 전략을 배제하지 않으며, 배출량 감축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지역 상황을 고려한 글로벌 일관성	가능하면 국제 시장에서 분명한 전달이 되도록 국제적으로 인식된 정의 사용이 선호되나, 지역 기술 구성(mix) 및 성능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분명한 이력 관리 체계(chain of custody)	가능한 원자재가 투입되고 출하되는 지점에서의 물리적 감축이 우선되어야 하나, 대체 회계 방식이 적용된다면 엄격한 규정 적용, 라벨링 등에서의 분명한 전달이 필요함
투명성	포함된 배출량 경계 및 사용된 회계 방식은 호환성을 위해 분명해야 함
접근성	정책 결정자 및 민간 부문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함

자료 : IEA(2024). Definitions for near-zero and low-emissions steel and cement, and underlying emissions measurement methodologies: Summary of emerging understandings

- 회원국들은 넷-제로 및 1.5°C 경로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근-제로 철강 및 시멘트의 배출 기준치에 대한 과학적, 공공 및 민간 이니셔티브 등에서의 점진적 합의를 인식함.
- 정의 및 기준치와 관련하여 IEA 보고서⁷⁾를 참고하며, 이는 각국의 상황, 정책 목표 및 일정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신흥시장 및 개도국(EMDEs)⁸⁾의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함.

○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 기후클럽에서는 넷-제로 경로에 부합한 정의, 방법론, 기준치 등에 있어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ISO 표준, 환경 및 탄소발자국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기존 방법론 등을 개선 및 활용하고, 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며,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 대신 기존 작업의 개선 기회 모색을 더 선호함.

“향후 정의, 방법론, 기준치 등에 있어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관련 작업이 전개될 예정”

6) clarity on level of ambition, signals progressive improvement over time, technology neutral, global coherence while accounting for regional circumstances, clear communication on chain of custody, transparent, and accessible
 7) Definitions for near zero and low-emissions steel and cement, and underlying emissions measurement methodologies: Summary of emerging understandings
 8)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 회원국들은 기후클럽의 결과 및 원칙의 기술적 구현을 위해 기존 글로벌 표준 설정 기구와 다자 포럼(예: IFCMA)을 통한 작업을 국가 및 지역 표준 기구와 협력하여 시작할 예정이다.

▣ 필러 3 관련 주요 내용(문단 22-26)

-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공공, 민간, 국내 및 국제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투자를 동원해야 하며,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인식함.
- 글로벌 매치-메이킹 플랫폼(GMP)
 - GMP는 COP29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신흥국 및 개도국의 지원 요청을 국제 기술 및 금융 자원과 연계하여, 산업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이를 NDC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지원을 제공함.
 - 기후클럽은 GMP와 여타 이니셔티브(Breakthrough Agenda 등)를 통해 국제적 지원 및 자금 제공을 조율하며, 큰 영향력을 미칠 프로젝트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기부자, 금융 제공자, 투자자 네트워크와 협력할 계획임.
- 민간 자본
 - 민간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금융 수단 및 이행 요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행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함.
 - 기후클럽은 지식 교환, 상호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음.

“GMP는 기후클럽 산업 탈탄소화 지원 메커니즘으로 COP29부터 본격 운영”

3. 산업 탈탄소화 국제적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COP29 글로벌 공약⁹⁾

▣ 배경

- IEA의 넷-제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관련 연간 평균 자본 투자는 2030년까지 2배, 2050년까지 3배로 증가하여 연간 약 5천억 달러에 이를 필요가 있음.
 - 현재 주요 산업(화학,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에서 연간 신규 넷-제로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는 15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는 2030년까지 700억 달러, 2050년까지 1,250억 달러로 증가해야 함.

9) COP29 Global Pledge: Scaling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industry decarbonisation (2024.11.18)

- OECD 보고서(2024)에 따르면, 신흥시장 및 개도국(EMDEs)¹⁰⁾의 산업 탈탄소화에 특정된 금융 및 기술 지원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2024년 11월 18일, 독일, 영국, 캐나다, 기후투자기금(CIF)¹¹⁾은 EMDEs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발표함.
- 독일 및 영국 정부는 4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공약하고, 이 중 1억 2천만 달러는 CIF의 산업 탈탄소화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관련 산업 탈탄소화 프로그램에서 최대 10억 달러의 저리 금융을 투입할 예정
 - 나머지 3억 달러는 국가들이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 독일: 약 2억 2천만 달러로,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인 국제기후이니셔티브(IKI)¹²⁾와 국제 개발 예산에서 조달.
 - 영국: 약 2억 1천 1백만 달러로, 영국의 기존 국제 원조 예산에서 조달.
- 또한, 정부, 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 다자개발은행, 자선 단체, 시민 사회, 기타 지원 제공자들과 협력하여 EMDEs에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도록 국제 지원의 조정, 접근성, 가용성, 포괄성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4. 완화 정책의 파급 효과(Spillover) 관련 대한 전략적 대화 요약 보고서¹³⁾ 주요 내용

■ 논의 배경

- 산업 탈탄소화 접근법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기후정책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으나, 접근 방식 및 시기의 다양성, 각국의 출발 조건의 차이는 국제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런 파급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탄소누출, 경제적 파급 효과, 기술적 파급 효과 등을 포함함.

10)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11) Climate Investment Funds

12)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13) OECD(2024). Summary report of the Strategic Dialogues on causes and relevance of spillovers from mitigation policies

- 특히, 높은 수준의 완화 정책을 진행 중인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누출은 국내 및 글로벌 완화 노력의 전반적인 효과와 의욕을 약화시키고 투자 및 신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기후클럽에서는 탄소누출 등과 같은 파급 효과의 원인 및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할 전략을 논의하며, 협력 강화를 통해 지식 및 기술 공유와 같은 긍정적 파급 효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적 대화를 진행 중임.

▣ 탄소누출 해결을 위한 정책

- 주요 정책은 배출권 무상할당, 세제 혜택, 탄소국경조정, 고-탄소 제품 소비세, 저-탄소 기술 보조금, 필수제품 기준 등이 있음.
 -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배출 감소를 위한 유인 체계를 유지하는 각 수단의 효과는 정책이 적용되는 맥락과 세부 설계요인에 따라 달라짐.
- 각 정책은 나름의 한계가 있지만, 접근 방식을 결합하면 관련 단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음.
 - 다만, 정책 간 정합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정책들을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함(예: 배출권 무상할당과 탄소국경조정 동시 적용 시 배출량 감소 목적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음).

〈 탄소누출 위험 해소 관련 방안별 특성 요약 〉

방안	국내 감축 유인	탄소누출 및 국내 생산비용 증가 방지	정부 수입 창출	청정 제품 외국 투자 촉진	행정적 관리 가능성
무상할당	중약	증강	없음	없음	강
우대 탄소세율, 세제 혜택	약	증강	약함	없음	강
탄소국경조정	강	중	있음	증강	약
고탄소 제품 소비세	중	강	있음	중	강
저탄소 기술 보조금	다양	증강	없음	다양	다양
필수제품 기준	다양	중	없음	다양	약

자료 : OECD(2024), Summary report of the Strategic Dialogues on causes and relevance of spillovers from mitigation policies

-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협력 형식에 대해 요약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제안된 상황임 (괄호 안의 내용은 협력의 요구 수준).
 - (정보 교환) 완화 접근법 투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및 정책 설계 관련(중약)
 - (상호운용성 제고) 탄소 집약도 산정 접근법, 데이터 수집 및 보고 기준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MRV 체계 관련(중)

- (상호 인정) 관할 지역 간 조정 촉진을 위한 탄소 집약도 산정방식, 가격 및 비-가격 기반 정책 관련(중강)
- (국제적 해법) 의욕 강화,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관련 공통 원칙,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공통 절차, 국제적 공통 정책 접근법(강)

5.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전망

- 기후클럽은 산업 탈탄소화에 필요한 과제 및 협력 솔루션의 거시적 비전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필러 1-3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심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탄소누출 및 기타 파급 효과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행동 원칙 또는 목표를 탐색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조율된 정책 접근법 대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철강 및 시멘트 근-제로 및 저-배출 정의에 대한 공동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IFCMA 및 관련 이해관계자 작업을 활용하여 배출 집약도 측정 방법론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GMP를 통한 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례 공유 및 학습을 통해 EMDEs에서의 고-배출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노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탄소누출 및 파급 효과, 근-제로 및 저-배출 철강·시멘트 정의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GMP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

▣ 시사점

- 기후클럽에서는 근-제로 및 저-배출 제품 시장 및 수요 확대를 위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규범이 마련되도록, 무역을 포함한 시장 측면에서의 기술적 논의 및 전략적 대화 등이 전개되고 있음.
 -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 기술, 금융 수단, 상호 협력 등의 분야에서 관련 주제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바, 관련 동향 및 경향성에 대한 지속 탐색이 필요함.
 - 한편, 이는 국내 탄소중립 및 NDC 이행에 있어 관련 비용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제협력 사례 및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음.
 - GMP에서의 협력 사례들은 청정에너지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 등 국내적 이슈 관련 해결책 마련을 위한 사례 발굴, 비즈니스 및 파트너 탐색 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특히, IEA 보고서에서 제안된 근-제로 및 저-배출 제품 정의에 대한 원칙에 기반하여 2026년까지 관련 제품 정의가 마련되고, 기준치 설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는 업계에 유의미한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출발점 및 여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탄소누출, 시장 파편화 등 파급 효과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신흥시장 및 개도국 시장을 주목하고 GMP 등을 통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결국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시장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력 규범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참고문헌

- Climate Club. 2023.12. Climate Club Work Programme 2024.
_____. 2024.11. Climate Club Members Statement Delivered on 12 November 2024 in the context of the high-level Climate Club event at COP29.
_____. 2024.11.18. COP29 Global Pledge: Scaling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industry decarbonisation.
- IEA. 2024. Definitions for near-zero and low-emissions steel and cement, and underlying emissions measurement methodologies: Summary of emerging understandings
- OECD. 2024. Summary report of the Strategic Dialogues on causes and relevance of spillovers from mitigation policies